

동네슈퍼, 무인 '스마트슈퍼'로 변신

도, 공모 선정돼 내달 16일까지 참여 점포 모집 스마트기술·장비·컨설팅 지원... 골목상권 강화

제주지역에 무인 운영이 가능한 스마트슈퍼가 등장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2021년도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에 참여 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소규모 동네슈퍼를 무인 운영이 가능한 스마트슈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총사업비 1억2000만원을 투입해 도내 12개 동네슈퍼

를 스마트슈퍼로 전환시킬 예정이다.

도는 오는 4월 16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은 후 현장평가 등을 통해 스마트슈퍼 참여 점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이 운영되는 165㎡(50평) 미만의 동네슈퍼이다.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은 스마트슈퍼 전환을 위한 스마트기술·장비 도입과 컨설팅 등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장에는 점포별 최

대 9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스마트기술·장비로는 출입인증장치, 무인계산대, 담배 판매 분리서터 및 주류 판매 잠금장치, 무인운영 안내 현판, CCTV 등의 기타 보안장비 구축 등을 지원한다.

또 무인 점포 경영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도 실시한다.

스마트슈퍼 지원 후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스마트소상공인 지원 자금과 연계돼 점포 시설 현대화를 위한 저금리 자금 신청 기회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도내에는 763개의 중소슈퍼가 운

영되고 있으나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 가맹점의 진출 등으로 경쟁력 약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비대면·디지털 유통환경 변화에 맞춰 골목상권 중소슈퍼의 경쟁력 강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확대·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삼야시간 등 무인 운영이 가능해지면 동네슈퍼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24시간 영업으로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대로그자 bigroad@ihalla.com

"잊혀진 지방세 1억600만원 찾아가세요"

제주시, 6월까지 환급 독려

제주시 관내에서 2월 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이 1억600만원(470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환급금이 발생한 사유별로는 차량소유권 이전 및 미등기 4400만원을 비롯해 국제경정 4800만원, 법령개정 400만원 등으로 파악된다. 이 중 1만 원 미만의 소액 환급금 사례는 3025건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하고 있어 납세자들의 무관심 속에 잊혀진 상태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6월까지 잡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기간을 운영해 시민들의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줄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와관련 해당 정기간 동안 환급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기존 환급계좌와 자동이체 계좌 조회, 반송안내문에 대한 주소 조회 후 재송달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환급금을 돌려줄 방침이다.

납세자는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728-2401~6) 또는 ARS(1899-0341), 인터넷(Wetax), 스마트 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고 손쉽게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또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환급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 등 편의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시는 또한 지방세 미지급 환급금 중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거나 환급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기간 지방세에서 차감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환급해주고 있다.

이윤형기자 yhlee@ihalla.com



"백신 휴가 보장하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가 23일 도교육청 앞에서 전 교직원 코로나19 백신 유급휴가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환경미화원 등 46명 공개 채용

서귀포시가 환경미화원 등 46명을 공개 채용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채용 분야는 환경미화원(21명), 청소차 운전원(4명), 청소년지도사(1명), 아동복지교사(1명),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1명) 등이다.

원서 접수기간은 4월 9일부터 4월 13일까지다. 희망자는 지방자치단체 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2021년 제1회 서귀포시 공무직 공개 채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백영탁기자

코로나 블루 극복 치유식물 나눔행사

서귀포시, 1인 3분씩 배부

서귀포시가 시민들의 '코로나 블루' 치유를 위한 라벤더, 로즈마리, 제라늄, 살비아 등 허브류 나눔행사를 전개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사회분위기를 극복하고, 시민들의 우울감 치유 등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일반가정에서 쉽게 키울 수 있는 치유식물 무료나눔행사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행사는 오는 4월 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강창학종합경기장 및 읍면지역(자체 선정)에서 드라이

브 스프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량은 3만2000분으로 1인 3분씩 선착순으로 배부된다.

특히 이번엔 나눠주는 치유식물은 지난해 종자와 모종을 구입해 생산한 것으로 실제 재배 시, 실내습도 유지 및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희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은 "드라이브 스프 비대면 방식으로 행사가 진행됨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을 위해 읍면동을 통해 직접 배부하고,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에게도 일정수량을 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영탁기자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10년 '괄목 성장'

2011년 시민 출연 재산 3억원 출발해 75억원 모금 지역 학생 유출 방지·진로체험·해외탐방 효과 특출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이 올해 10주년을 맞으며 교육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며 '괄목상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시에 따르면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은 2011년 3월 28일 시민성금으로 모은 출연 재산 3억원을 시작으로 설립 10년 동안 1시인 1계좌 갖기 운동 등을 적극 전개하며 현재 모금액은 74억9600만원(기부금 67억2700만원, 이자 7억6900만원)에 이른다.

조성된 기금중 26억7400만원은 >

입시대비 눈술·면접 캠프, 수능특강, 정시 컨설팅(5회, 1899명) > 청소년 진로축제(1회, 3500명) > 청소년 대중문화캠프(10회 1478명) > 토론 아카데미(7회, 1400명) > 해외 명문 대학 탐방 및 문화체험(7회, 172명) > 제주 진로 직업 박람회(7회, 6만 8000명) 등에 투입됐다.

특히 학교와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입시위주 교육에서 탈피하면

서도 타시도와 차별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금이 활용되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은 지역사회와 다양한 교육 분야에 긍정적 효과를 도출하고 있다.

제주시 평준화 고등학교 진학하는 서귀포 지역의 학생 수가 출범 초기인 2011년 166명에서 올해 32명으로 80%가량 줄었다. 고입제도 변화의 이유도 있지만 지역 학생을 위한 다각적인 프로그램 지원의 영향도 적잖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2019년 제주도 통계)의 교육내용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 만족(9.1%)과 약간 만족(47.3%) 등 만족도(56.4%)가 높았다. 적성개발 만족도(42.3%) 역시 매우 만족(7.6%)과 약간 만족(34.7%) 등으로 비교적 좋은 편이다. 또한 고교 졸업생 진로가 기존 대학진학에서 적성 맞춤 진로 선택 등으로 취업 및 창업 준비 등 다양화 되고 있다.

현봉식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이사장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칠십리 직업 100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서귀포지역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아울러 서귀포 시민들의 자발적 기부 행렬도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모금 활동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백영탁기자 haru@ihalla.com

벚꽃 장소에 방역상황실 운영

왕벚꽃과 유채꽃이 개화하면서 나들이객들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우려되면서 인파가 몰릴 곳으로 예상되는 지점에 방역상황실이 운영된다.

제주시는 봄철 상춘객으로 인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왕벚꽃이 만개한 장소에 방역상황실을 운영,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방역상황실은 내달 11일까지 민관 협력으로 운영된다. 설치장소는 제주시 전농로 왕벚꽃거리와 제주대학교, 제주시 종합경기장, 애월읍 장전리 등 4곳으로 방역상황실은 발열체크와 손소독제를 갖추고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문 배부 등 확산 방지를 위한 활동을 벌인다.

이윤형기자

영락리 취약지역 환경 개선

서귀포시는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공모를 통해 대정읍 영락리마을이 2019년에 선정되며 추진되고 있다.

2022년까지 4년간 사업비 19억 1100만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 내용은 노후주택 정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재래식 화장실 정비, 주민공동시설 조성 등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공사비 전액이 지원되며 이외의 경우는 공사비의 50%(주택정비)와 30%(지붕개량)를 주택소유자가 각각 부담해야 한다. 백영탁기자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마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연작장해 토양 소독 살균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페르카 효과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 YouTube **석회질소** 검색

달팽이추출물 핵심물질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율 상승 및 냉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고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얇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함

왁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켜주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 N A V E R **코코리** 검색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